

혜원 신윤복, 조선의 여인을 그린다



최석조 글 | 김민준 그림 | 160쪽

〈윤복 도련님이지 누구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미술 교과서 10단원 38쪽



혜원 신윤복은 신비에 쌓여 있는 화가이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다,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이가 쓴 책에 나와 있는 단 몇 구절을 바탕으로 짐작할 뿐이다. 그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대신 그의 그림은 50여 점이 남아 있다. 우리는 그의 그림을 통해 그의 삶을 짐작하고 그가 어떠한 정신으로 예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신윤복은 김홍도, 김득신과 더불어 조선 3대 풍속화가로 알려져 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인 풍속화를 그린 사람이 신윤복이다. 그의 풍속화에는 화려한 '색깔'과 기방과 기생과 여인이 등장한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조선에서 가장 색다른 풍속화를 그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혜원전신첩》 중 〈단오풍정〉

(학습 목표)

신윤복의 그림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은 그림을 찾아보기 힘들다. 당시 화가들은 여인을 잘 그리지 않았다. 그린다 해도 모성애를 나타내거나 일하는 여인을 그릴 때뿐이었다. 신윤복은 예쁘게 차여입고 화장을 한 여인을 그렸다. 더구나 풍속화에 알록달록한 원색을 썼다. 여인들이 입는 옷도, 남자들이 입는 옷도 컬러로 그렸다. 현대 디자이너들은 조선 시대 옷을 연구할 때 신윤복의 그림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연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만약 그의 그림이 없었다면 조선 시대 옷 빛깔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여자의 맨살, 남녀의 사랑, 포옹, 입맞춤까지 그렸다. 또 기방과 기생을 그리고, 여인들의 욕망과 본능까지도 그림에 담아냈다. 그런 만큼 그의 그림은 당시에 아주 파격적이었다.



- 신윤복의 가계에 대해 알아보자.
- 조선 시대 '풍속화'가 어떤 그림인지 알아보자.
- 신윤복은 풍속화를 그릴 때 강렬한 원색을 썼다.
그에 견주어 다른 화가들은 원색을 쓰지 않았다. 그 까닭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신윤복의 〈단오풍정〉, 김득신의 〈야묘도추〉, 김홍도의 〈씨름〉을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서로 말해 보자.

(독전 활동)

신윤복의 <쌍검대무> 보고 칼춤 추는 여자 그리기

- 선생님은 네이버에서 신윤복의 <쌍검대무> 이미지를 준비한다.
- <쌍검대무> 이미지를 텔레비전으로 보여 주고, 책에 나와 있는 해설(81~87쪽)을 바탕으로 설명해 준다.
- 쌍검대무(雙劍對舞 쌍쌍·칼검·대할대·춤출무)는 말 그대로 '양손에 칼을 쥐고 마주 서서 칼춤을 춘다'는 말이다.
- 지금 신윤복은 어디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물어본다. 힌트는 아래 왼쪽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신윤복이 앉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칼춤 추는 무희(舞藏 춤출무·놀이)가 둘인데, 여기서 아이들이 그려야 할 것은 오른쪽 무희다. 일단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남자아이 둘을 칠판 앞에 나오게 해, 먼지떨이를 양손에 쥐어 주고 그림과 똑같이 몸짓을 해 보이게 한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동무들이 말과 행동으로 바로 하게 한다.
- 먼저 2B로 테두리 선을 그리고, 수채화 물감으로 색을 칠하게 한다. 색깔은 자신이 칠하고 싶은 색깔로 칠하면 된다. 웬만하면 원색으로 칠하라고 말해 준다.



《해원전신첩》 중 <쌍검대무>

(독후 활동)

신윤복의 <미인도> 공부하기

→ 선생님은 네어버에서 신윤복의 <미인도>, 밀로의 비너스, 통일신라의 여인상 이미지를 준비한다.

→ 세 작품은 여자라는 공통점과 더불어 한 가지 공통점을 더 찾을 수 있다. 바로 아래쪽 발 끝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아래쪽에 답이 있다고 말하면 바로 찾을 것이다.) 밀로의 비너스는 오른발 끝이, 통일신라 여인상에는 두 발 끝이, 신윤복의 <미인도>에는 왼쪽 발 끝이 나와 있다. 만약 이 세 작품에서 이 발끝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아주 답답한 형상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더구나 밀로의 비너스와 신윤복의 <미인도>에서 발끝은 작품의 무게중심 구실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인도>